ICID 제17차 총회 및 제50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고서……

김 대 년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사무국장)

ICID 총회는 매3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로, 전세계 90여개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관개배수와 관련되는 지구촌의 문제점들을 다같이 고민하고 토의하는 명실공히 「물의 UN 총회」다. 1951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제1차 총회가 열린 이후 금번의 제17차 총회가 열리기까지 모두 49개의 의제들(Questions)이 토의되었다.

이번 제17차 총회에는 「Water in the Next Millennium」이라는 Congress Theme를 가지고 전세계 90여개 회원국들중 54개 회원국에서 54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World Bank, IPTRID, FAO 대표 등 총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모여 의제 48(Irrigation under conditions of water scarcity), 의제 49(Rehabilitation and modernization of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s), Special Session(Sustainable use of poor quality water), Symposium(Irrigated agriculture - Constraints, future role and crop diversification), 그리고 각 기술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지구촌의 당면 문제점들을 토의하면서 기술을 교류하는 농공기술인들의 지구촌 잔치였다.

ICID의 최고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회의(IEC -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는 매년 회원국을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으며, 제50차 IEC 회의도 총회와 더불어 개최되었다.

우리 KCID에서는 조홍래 회장과 유근학 ICID 명예부회장을 비롯하여, 농림부의 허유만 과장, 농진공에서 이석우 이사, 정병호 부원장, 박상현 수리시험장장, 어대수 과장, 조사설계처 손혁준씨 및 필자, 농조연합회에서 유혁우 경북지회장, 이행우 과장, 학계에서 경북대의 서승덕 교수, 경상대의 이근후 교수, 충남대 김태철 교수, 그리고 업계에서 현대건설의 이재영 전무, 강대신 이사 등 17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국제사회에서 ICID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회원국수와 ICID의 각종 회의 참가자수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의 규모도 ICID 총회 참가 이래 가장 큰 규모였으며, 물론 이는 내후년으로 다가온 ICID 서울 회의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여타 주요 국가들에서도 참가 인원들이 대폭 증가되어, 미국이 36명, 일본 32명, 이집트 22명, 이태리 21명, 모로코 18명, 화란 18

명, 프랑스 16명, 독일 5명, 영국 15명, 포르투갈 12명, 타이완 12명, 인도네시아 11명, 중국 11명등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필자는 KCID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이번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사무국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새길만한 총회였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ICID 총회의 각종 주요 회의에서 2001년 서울국제회의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홍보하는 일이었다. 서울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회원국들로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토록 하는 것이다.

그라나다 회의에 참가한 KCID 대표단

회의 주최 재원 상당부분을 외국인들의 참가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것은 여타 ICID 회의 주최국들의 공통상황이다. 따라서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 IEC 회의에서 2001년 서울국제회의의 참가비로 1인당 미화 600불을 받도록 결정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IEC 회의에는 400여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나 여기에서 욕심을 좀 더 내본다면 우리는 500명 정도의 유치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국인 전문가들의 참가비를 200불 정도로 잡아본다면 참가비 수입만으로도 어림잡아 4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은 확보가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총회의 '환경', '포장 관개배수', '관개배수 실행' 등 3개의 Working Group Meeting에서 서울국제회의시 그들 주관으로 3개의 Workshop('간척개발', '필요수량', '용수재이용' 등)을 개최키로 합의가 되어, 100명 이상의 전문가의 참석을 더 확보하는 셈이 된 것이다.

둘째로 서울회의의 주된 행사는 IEC 회의이지만, 여기에다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 및 3개의 Workshop을 개최키로 되어 있어, 재정수입 확보차원에서 전시회도 더불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국제회의를 계기로 국내의 유수한 건설업체, 연구 및 기술용역업체, 건설 및 관개배수 기자재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관개배수 분야의 종합상사라고 할 수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비중도 크게 부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그라나다 회의시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대표들을 만났으며, 그들 모두가 서울 국제회의 전시회에 초청만 해 준다면 기꺼이 참가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번 그라나다 총회는 철저하게 상업성을 추구한 회의여서 아마도 흑자 행사가 되지 않았나 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으로, 이윤추구를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주최측이 공공연하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은 아무래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다. 이러한 주최측의 당혹스러운 행동은 서울 회의를 앞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대표단은 금번 ICID 총회에서 서울국제회의의 준비상황 보고와 더불어 「한국의 밤」 리셉션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 가곡과 국악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리셉션 라인에 배열한 KCID 회장단과 홍장희 주재국 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ICID의 집행부 인사들과 각국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연회였다. 정병호 전임이사의 진행으로 연회는 조홍래 회장의 영어 인사말로 시작이 되었고, 이어 홍장희 대사의 인사말은 연회의 품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ICID 회장인 캐나다의 Shady씨, ICID 명예회장인 영국의 Hennessy씨, 그리고 ICID 부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말레이지아의 Keizrul씨의 격려사 또한 연회를 더욱 더 빛나게 해 주었다.

이번 총회에서의 특기할만한 또 한가지 사항은 서울대 권순국 교수가 Special Technical Session에서 「농업용수의 재이용」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농림부의 허유만 과장이 의제 49에서 Panel Expert로 활약을 한 것이다. 또한 어대수 박사는 YPF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KCID가 제작한 YPF Home-page를 발표하는 등 학술발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 분과위에서 우리 위원회의 정병호 전임이사가 의장으로 천거 되기도 하였으나 본인이 고사하여, 이번에 ICID 회장으로 선출된 현재의 Keizrul씨가 의장을 중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ICID Society에서의 KCID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 참가를 통하여 느낀 것은 선진 외국의 컨설런트들이 ICID Society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란의 DHV, Euroconsult, Nedeco, Haskoning, 영국의 MacDonald, 독일의 AHT 등 세계 유수의 기술용역업체들로부터 많은 컨설턴트들이 참석하였으며, ICID 총재단 역시 대부분이 기술용역업체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임 총재 Shady씨 역시 카나다 CIDA(한국의 KOICA와 같은 기관)의 기술고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관료와 대학교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개도국들의 경우는 아직 거의 대부분이 현역 관료들이 참가하고 있었다.

우리 시장의 개방이 임박해 오고 있고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우리의 기술용역업체들도 하루 속히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또한 금번 그라나다 총회는 특이하게 총회 개막식에

좌장격으로 그 나라 농림부 장관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그 사람이 직접 개막식을 주재할 정도로 그 나라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관개배수 분야가 개발보다는 개발된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내포된 총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단면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아무리 값 비싸게 개발된 물이라도 오염된 물은 더 이상의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마련이며, 이제 환경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 장관의 치사는 지금 스페인 관개배수위원회에서 영어로 번역 중에 있으며, 이것이 입수 되는대로 다음번 KCID 회지에 실어 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느낀 사항은 일본의 대규모 대표단 참가였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국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발언권을 행사치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상응하는 발언권을 행사토록 노력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본의 대규모 대표단이 파견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2001년 서울 국제회의 준비라는 막중한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행사의 학술계획, 전시계획, 견학 관광계획, Social event를 포함하는 개·폐회식 계획 등 세부시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이 계획에 따라 준비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의장소를 서울 컨벤션 센터로 잠정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회의장소를 확정하고, 회의 준비와 집행을 전담토록 할 PCO(Professional Convension Organizer)업체의 선정, 각종 기술행사의 주제와 부제 확정과 원고 모집등 할 일이 산적되고 있다.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러한 막중한 일을 처리하려면 1998년 3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시에 공식으로 발족된 「서울 국제회의 준비위원회」가 활발히 가동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거창하게 보이는 회의보다는 내실 있는 분과위원회가 항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할 KCID 사무국도 새로운 진용으로 조속히 확충 개편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우리의 기술력이 널리 홍보되고 ICID Society에서 우리의 전문가들이 부회장, 나아가 회장으로까지 진출하여, 명실공히 ICID Society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 강대신(현대건설주식회사 이사대우)

직장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 (02)746-2560 Fax : (02)746-3118

정정 ▶ 회원수첩에 기재된 김재금 이사(삼안기술개발(주) 고문)의 주소가 잘못되었기에 정정합니다.

직장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68-13 삼안기술개발(주) Tel : (02)872-5111

자택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12-13 Tel : (02)3444-3679